

제1절 금음1리(金音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으로는 삼울4리와 접하고, 남쪽은 금음3리와 닿아있다. 서북쪽은 산지(山地)이며, 쉼밭밀과 쇠골의 두 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회관은 2008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2. 마을의 역사

1275년(충렬왕 3)에 평해군 남면(南面) 야음리(也音里)로 되었다. 1914년 3월 1일에 울진군 평해면 금음리로 되었고, 1944년에 금음리에서 분구(分區)되어 금음1리로 되었으며 1953년 1월 19일[면조례 제15호]에 평해면 후포출장소에 속했다. 1980년 12월 1일[대통령령 제10050호]에 평해면이 읍(邑)으로 승격되어 평해읍 금음1리로 되었으며, 1986년 3월 27일[대통령령 제11874호]에 후포출장소가 면(面)으로 승격되어 후포면 금음1리로 되었다.

3. 가구 분포

총 148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충주 지씨(忠州池氏), 김해 김씨(金海金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밀양 박씨(密陽朴氏)를 비롯해 다수의 성씨가 분포하고 있다.

4. 전설

1) 쉼밭밀

마을 뒷산에 나무숲이 무성하였다 하여 마을 이름을 쉼밭밀이라 불러왔다.

2) 쇠골[쇠골, 설곡]

이 마을 뒷산에 광산이 있어 일본에 광물을 수출하였다 하며, 광물 또한 풍부하다 하여 마을 이름을 쇠골이라 불러왔으며, 금음리(金音里)라는 마을 이름도 이 광산에 연유된 것이라 한다.

3) 절골

철광(鐵鑛)이 있는 부근에 옛날에 사찰(寺刹)이 있었다 하여 이 지역을 절골이라 불려왔다.

제2절 금음2리(金音二里)

1. 마을의 자연환경

사방이 산지(山地)로 둘러싸인 산간형 농촌 마을이다. 마룡산(馬龍山) 기슭에 있는 마을을 만산(萬山)이라 하고, 그 아래에 있는 마을을 직곡(直谷)이라 한다. 마을회관은 1999년에 건립되었다.

2. 마을의 역사

1944년에 금음리에서 분구(分區)되어 금음2리로 되었다. 1953년 1월 19일[면조례 제 15호]에 평해면 후포출장소 관할에 있었다. 1980년 12월 1일[대통령령 제10050호]에 평해면 이 읍(邑)으로 승격되어 평해읍 금음2리로 되었으며, 1986년 3월 27일[대통령령 제11874호]에 후포출장소가 면(面)으로 승격되어 후포면 금음2리로 되었다.

3. 가구 분포

총 36세대가 거주하며 김해 김씨(金海金氏), 전주 이씨(全州李氏), 평해 황씨(平海黃氏), 인동 장씨(仁同張氏) 등 다양한 성씨가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동제(洞祭)

음력 정월 10일에 제관(祭官)을 선정하고, 정월 15일 밤에 제관이 목욕재계 후 엄격한 규칙을 담아 마을 제사를 지낸다.